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유라시아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농식품 체계 연구 워크숍 참석 및 공동연구 협의

1. 출장목적

- 세계은행과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유라시아식량안보센터(ECFS) 주최 국제 워크숍 참석
 - 회의명 : 유라시아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농식품체계 연구(이하 ‘유라시아 연구’) 착수 워크숍(Launching Workshop for Study on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 Transformation for Bette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Eurasia)
- 참석자들에 대한 우리 연구원의 소개
 - 역할, 구성, 전문 분야, 유라시아 관련 연구성과 등
- 유라시아 연구에의 우리 연구원 참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
 - 대상국가, 연구 분야, 자료수집 방법, 연락 등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허장 선임연구위원	러시아 모스크바	2017. 12. 19 ~ 2017. 12. 22 (2박 4일)

3. 일정표 :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세부일정	비고
1	12.19 (화)	인 천 (13:20)	모스크바 (16:55)	○ 출국		KE5923
2	12.20 (수)	체	재	○ 세계은행 모스크바 사무소	- 워크숍 참석 (09:30-17:00)	

3	12.21 (목)	체	재	○ 세계은행 모스크바 사무소	- 워크숍 참석 (09:30-17:00)	KE5924
		모스크바 (20:55)	-	○ 이동		
4	12.22 (금)		인천 (11:20)	○ 입국		

3. 출장결과

가. 워크숍 참석

워크숍 목적

- 이 회의는 세계은행이 지원하고 모스크바 국립대 소속 유라시아식량안보센터 (Eurasian Center for Food Security, ECFS) 주관으로 추진하는 유라시아 연구의 착수를 위한 워크숍으로, 국가별 식량안보와 영양개선을 위한 이른바 “선도 보고서(Flagship Report) 작성”이 목적임.

주요 아젠다별 회의결과

-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 개국 참가자들의 국별 식량정책 관련 발표
 - 국가별 발표자 및 주제

국 가	발표자	주 제
아르메니아	Naira Harutyunyan	Case Study of Armenia
카자흐스탄	Gulzhan Nurtazina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in Kazakshtan
키르기스스탄	Kanat Tilekeev	Food Security and Nutrition Situation in Kyrgyzstan
러시아	Vitaly Nagornov	Russia and the Paradigm of Food Security
타지키스탄	Christine Oriol	Food and Agriculture in Tajikistan
우즈베키스탄	Botir Dosov	Food Security in Uzbekistan

- ECFS에 대한 소개(Evgeny Tsvetnov)
 - 2009년 G8미팅(이탈리아)에서 식량안보 논의가 진행되면서 출범함.
 - 2013 세계은행, IFPRI 등과 파트너십 관계 맺음. 이후 CGIAR의 16번째 회원 기관으로 되기 위해 노력중
 - 2016년부터 세계은행과 2단계 협력관계 설정을 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와 코커서스 지역의 식량불안정 국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글로벌 식량문제, 토지자원 문제, 식량안보 등 세 가지 주제가 핵심 연구대상임. 특히 토양학이 유명한 모스크바국립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토양DB를 갖고 있음.
 - 연구, 조정, 분석, 역량개발 등 네 분야에서 활동함.
- 일정
 - 연구착수 12월
 - 인터뷰 설문 작성 2018년 1월
 - 화상회의(video conference)를 통한 연구개요(outline) 완성 2월 중순
 - 현장 서베이 및 자료 수집 2-3월
 - 국별 보고서 초안 4월 말(워크숍 개최)
 - 국별 보고서 초안에 대한 동료 검토(peer review) 5월 말
 - 국별보고서 검토 및 종합보고서 초안 7월
 - 종합보고서 초안에 대한 동료 검토 및 완료 8월(워크숍 개최)
 - 2차 워크숍 7월 혹은 8월
 - 종합보고서 편집 9월
 - 발표 10월(연차보고 대회 개최시)
- 연구방법 관련
 - 보고서 언어는 영어로 하되 필요시 번역하고, 웹사이트에는 요약문을 여러 언어로 게재
 - 공통부분에서의 데이터 소스는 기존 FAO 등의 DB를 활용하여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국가별로는 인터뷰 등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함. 즉 공통으로 할 부분과 각국별로 특별히 다를 내용으로 구분할 필요 (standard vs. country-specific challenges)가 있으며, 따라서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포맷 등 템플릿을 제공할 필요
 - 자료의 공유는 세계은행의 드라이브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면 될 것임.
 - 가구단위 서베이는 WFP에서 수행한 것도 있으므로 현단계에서는 불필요
-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 대상

- 인터뷰는 고위급 정책결정자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함. 고위급의 경우 만나기 어렵다거나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으며,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 있고, 대체로 기대되는 수준의 답변만 들을 수도 있으므로(politically correct answers) 주의할 필요
- NGOs, 연구자 등 자료수집 대상에 따라 시각이 많이 다를 것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
- 이 연구는 이론연구가 아니므로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는 없음.

○ 연구내용 관련

- 연구내용에서 대상국 간의 이질성 극복 필요하며, 국가별 쟁점 도출
- 식량영양안보(Food Security and Nutrition, FSN)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즉 식량자급과 경쟁력을 통한 무역 증대 간의 선택(food self-sufficiency vs. competitiveness)
- 상대적으로 덜 다룬 내용들, 가령 기후변화, 가치 변화, 자본의 흐름, 국제적 통합(중국의 일대일로, WTO 등), 수자원과 에너지 이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컨셉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 연구를 통해 답변이 필요한 것인지 체크할 필요 있음.
- 2년 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식량영양안보의 상태를 검토하려고 하였는데 FAO가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보다는 농업의 변화(agricultural transformation)에 따른 식량안보와 영양에의 영향을 보는 것으로 하였음. 즉 식량안보와 농업의 변화가 이 연구의 핵심임.
- 농업의 변화라고 하면 소비측면(영양결핍, 비만 등), 생산측면(식량자급 vs. 경쟁력 강화와 무역확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임.
- 정책함의 도출이 이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함. 즉 정책결정자들이 식량영양안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what can be done?)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보고서의 구성에 대한 제안(Jo Swinnen)

- 농업 등 구조의 변화(transformation) : 분임토의에서 거론된 통상, 기후변화 대응, 토지권리, 보조금, 농업 구조, 식품 손실 등 이외에도 가치사슬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투입재에서 소비까지 검토하고, 농지개혁도 포함할 필요
- 변화의 원인(What is drive of the change)
- 정책의 구조(What are policy frameworks)
- 정책에 대한 평가(Are they adequate policies? If no, why?)
- 결과 정리(Aggregation of results)

- 연구참여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 이메일 등 방안을 최대한 활용

※ 분임토의에서의 논의 내용(2일차, 정리 : Evgeni Tsvetnov)

1. 연구의 목적

- 농업의 변화(agricultural transformation)와 식량안보 및 정치경제학을 연결하여 국가전략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것
- 농업변화의 영향을 수량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연구의 구성은 현황 기술, 농식품체계의 변화 설명, 정치적 지형의 분석(description; agriculture and food system transformation; analysis of politics space)의 순서가 좋을 것임.

2. 방법론

- 농업변화에 관한 지표를 찾기 위한 분야로는 통상, 기후변화 대응, 토지권리, 보조금, 농업 구조, 식품 손실 등이 있을 것이며, 추세를 나타내줄 필요
- 문헌 리뷰, 인터뷰와 교차 검토(cross checking) 등이 연구 방법
- 현지조사는 이해관계자의 파악부터 시작하며, 이해관계자는 정부, 공여기관 및 NGO, 가치사슬 단계별 참여집단 등 세 그룹으로 나뉨.
- 현지조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성격에 따라 진행 프로토콜이 달라야 할 것이며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진행
- 국가별 비교를 위한 국제 데이터는 어떤 DB를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별 자료로 이를 보완하는 방식임.

3. 주요 주제

- 정부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절차, 정책의 결과와 효과성, 개선 방안 등
- 공여기관 및 NGO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제일 것임.
- 가치사슬 참여집단에게는 이 밖에도 의견의 반영 현황, 현황과 개선방안의 파악 등이 자료수집의 주된 주제가 될 것임.

4. 자료 수집원

- 통계집과 보고서, 인터뷰 결과

5. 이 연구가 잘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명확한 일정표 필요(보고자료 제출 기한, 연구 단계별 작업 일수 등)
- 데이터, 종합화

6. 연구자 간 조정

- Trello라고 하는 플랫폼이 유용
- 월간 온라인 회합 필요

□ 연구원 소개

- 워크숍 참석 배경 소개 : 유라시아 연구에의 참여 희망
- 연구원이 유라시아 관련 연구 현황 소개
 - 해외농업개발, 체제전환국가 등 관련 연구 정리 및 소개
- (질문) 영문 보고서 성과가 별로 없는 문제 → (답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할 예정임.
- * 연구원 소개 자료는 별첨 참조

※ IFPRI 소개(“What Can IFPRI Contribute?”, Kamiljon Akramov 발표)

- IFPRI는 CGIAR이 지원하는 세계 15개 연구기관의 하나

그림 1 CGIAR 회원 연구기관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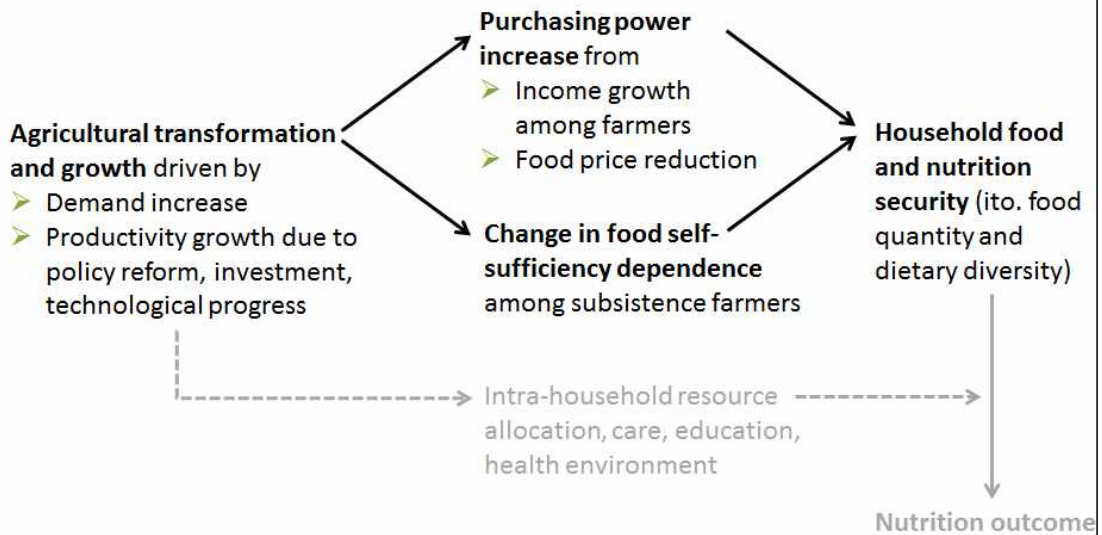
- 중앙아시아 농업 및 식량안보 관련 프로젝트
 - 1단계(2013~2016)로 PIM, A4NH라는 사업 진행 : 정책연구, 역량강화 사업
 - 정책연구의 예 : 외부충격의 중앙아시아 경제에의 영향, EEU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 중앙아시아의 기후변화와 농업개발 및 식량안보, 타지키스탄의 농업 다각화와 영향, 식품안전을 위한 가치사슬 분석, 키르

기즈스탄의 식품소비 패턴과 영양에 대한 평가

○ 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① 이 지역의 현재 영양 상태와 추세에 대한 평가

그림 2 농업의 변화, 성장의 식량영양안보와의 연계



② 농업-영양의 연계 검토

③ 이주와 송금의 유형 및 식품·영양안보에의 잠재적 영향

다. 유라시아 연구 참여 방안 협의

○ 제안 내용

- 대상국가 : 우리나라와 협력관계가 비교적 누적되어 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3개국에 초점
- 참여 연구분야 : 대상국가의 국가전략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관련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정 경험 사례 소개, 대상국가에 대한 합의

○ 전체 연구책임자(Jo Swinnen)의 의견

-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령, 해외농업자원 개발에서의 사료곡물, 농산물 가공 등)를 중심으로 연구참여 제안

○ 협의 결과 합의

- 연구의 개요(outline)가 완성되어 화상회의(video conference)가 열릴 2월 중순까지 연구 참여 방법, 세부주제 등에 대한 협의 완료 필요